

제3문명기의 동양과 불교

‘중도’ 적용으로 조화와 통합의 세상 도래

강사 :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일시 : 2009년 3월 11일

장소 : 대원불교문화대학 대강당

주최 : 대원불교문화대학

주제 : 제3문명기의 동양과 불교

3월 11일 마포 대한불교진흥원 대강당에서는 대원불교문화대학 개강기념으로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75)의 대원불교사상강좌가 열렸다. 이번 특강은 민병천 이사장이 이사장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강연하는 첫 강좌이기에 많은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법정대학장, 총장, 의원장 등을 역임하고 북한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민병천 이사장은 남북문제를 비롯한 세계정치사 분야의 권위자다. 해박한 지식과 불교사상으로 21세기를 전망하고, 한국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제3 문명기(文明期)의 동양과 불교’ 강의를 함께 들어 보자.

제3문명으로 진입하는 과도기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현재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정보 중심 제3문명으로 이동하는 길목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문명사를 되짚어 어떤 국가나 사상이 흐름을 주도했고, 향후 우리는 어떤 사상과 종교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흐름에 대처해야 할지 고찰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항목, 제2문명(산업사회), 제3문명(지식정보사회). Rows include 등장시기, 존속시기, 주도산업, 생산주요요소, 생산주도자, 물품거래, 생활권역, 외국지배, 부속적방법.

문명과 인류 역사는 산업혁명 이전까지인 농경사회를 1기, 산업혁명부터 인터넷혁명까지인 산업사회를 2기, 인터넷혁명부터 시작된 지식·정보사회를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 점차 큰 것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강에서 보다 큰 강으로, 큰 강에서 작은 바다로, 작은 바다에서 보다 큰 바다로 문명의 중심은 이동해왔습니다.

제1문명기는 황하, 인더스, 나일, 메소포타미아 등 4대강 유역이 중심이 됐고, 제2문명기는 대서양이 중심이 됐습니다. 유럽 각 국가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화약, 나침반, 인쇄기술, 조선통상 등의 도움으로 큰 배와 대포를 만들어 넓은 바다로 나가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중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보다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됐고,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공업은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흐름은 2차 대전 전후로 식민지 해방과 냉전과 탈냉전 시대를 거치며 태평양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제2차 문명

을 주도해온 산업들은 점차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선박 등으로 수출산업을 주도하며, IT관련 산업에서도 앞서가는 제2문명과 제3문명의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제3문명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의 3대 생산요소를 통해 물품을 생산해 부를 창출하는데서 정보, 지식, 문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욱 더 교류를 통한 발전이 중시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문을 닫고 있는 나라는 흥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것은 자국에서 소비하고, 교류자체도 인접국가 차원이었습니다. 더 큰 시장을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했고,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방에 앉아 전세계를 시장으로 활동합니다. 자신이 생산해낸 것에 대한 지적소유권 특히로 로열티를 받을 정도입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사회는 보다 더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21세기 패권 국가는 누구?

인류학자 토인비(Arnold J. Toynbee · 1889~1975)는 <역사의 연구>에서 서구문명조차 쇠퇴와 해체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앞으로의 주도 문명은 비(非)서양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태평양 시대의 도래, 중국 문명의 흥중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은 그의 생각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시기단계, 패권중심국, 부차주도국, 주도내용. Rows include 1단계(초기), 2단계(중기), 3단계(후기).

전문가들은 문명주도국으로 현재 미국 주도에서 점차 미국과 중국의 2원 체제, 더 나아가 다원체제로 세계 패권을 둘러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발 금융위기로



민병천 이사장은 고통에도 처분한 설명으로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불자들의 대비를 당부했다.

인해 더욱 가속화될 상태입니다. 즉, 2009년부터 미국 단독패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국입니다. 일본 또한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대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 문명으로 시작한 서구문명이 북미와 서유럽, 동유럽 등으로 분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화권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한자문명권의 영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인도의 성장까지 견해 동아시아권 전체가 하나의 패권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와중에 중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더욱 영향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반도 또한 통일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동양으로의 패권 이동과 불교의 역할

불교는 자비로 살생을 피하라 설합니다. 살생을 기피하니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팔정도나 양극단에 치우쳐 대립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모자람도 없고 지나침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중도통합을 의미합니다. 타협과 조화를 통해 다른 생명, 종교, 문명과 공생하는 불교의 원리는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현재 서양에 들어가서도 조용한 가운데 사회개혁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배격하지도, 배척당하지도 않으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호 스님은 ‘비동비이론(非同非異論)’에서 같지도 않으며, 다르지도 않은 공존을 말했습니다. 현대

적으로 적용하면 타문명이 서로 공존하며 인정하는 조화와 통합의 세상입니다. 당장 지금의 한국에 적용하면 남북관계에서 불교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남과 북은 이념은 다르지만 민족은 같습니다. 같으며, 다른 공존을 이루기 위해 우선 서로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열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핵보유와 같은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고, 긴장을 부추기기 행위를 자제하며, 민간지원과 평화봉사활동 등을 통한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상대성을 교리로 말합니다. 절대적인 것에 매달리는 종교가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연기를 통해 상대인정에서 나를 보고 다시 중도의 입장에서 각자를 보면 갈등 대립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평화와 갈등해소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제3문명은 동북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불교적 사상을 통해 세계와 태평양의 주변이 아닌, 동북아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몽고족은 동북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을 질주했지만, 현재 몽골 일부를 제외한 어디에도 몽고족의 문명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를 비롯한 문자 등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은 동북아 교유의 불교와 더불어 유교, 도교의 조화로 앞으로 다가올 세계패권 중심인 한자문명권에서 주도세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민병천 이사장의 첫 특강에 스님들을 비롯한 강좌 참가자들이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불자정보' (Buddhist Information) 723호. Includes contact info, a grid of 15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and a '탈종공고' (Religious Exit Notice) section.